

[박물관의 도시]

길림시 청조시기 애국장군기념관 정식 개관



이커탕아 장군 사진 전시

최근, 길림시의 청조시기 애국장군 기념관(구 장려산 저택)이 공식적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기 시작했다.

기념관은 길림시 선영구 송강중로 61 호에 위치, 서쪽으로 화룡거리를 사이두고 길림시인민정부 건물과 이웃하고 있는데 길림시 역사건축물중 보존이 가장 잘 되어있는 고적이다.

이 기념관은 청조 말기의 저명한 애국장군 이커탕아(依克唐阿)의 저택이다.

청조 말기 성경 장군-이커탕아 장군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동북 변경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중대한 공헌을 했으며 청조 말기에 국가주권을 수호한 주요 장군중의 한명이다.

이번 전시는 청조의 길림 출신 애국장군들의 행적을 핵심 주제로 삼아 살포소(萨布素), 부덕(富德), 송군(松筠) 등 길림 역사에서 국가주권을 수호하고 영토 보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애국장군들을 조명했다.

또한 저택의 역사적 변천을 정리하고 특별 전시를 세심하게 기획하며 역사적 유물을 생생하게 제시함으로써 국토 방위와 지방 치리, 국가 건설 과정에서 길림의 기여와 중요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전시는 진실한 사료에 기반하여 가정과 국가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길림의 역사적 중후함과 인문정신을 보여주고자 했다.



전시관 일각

한편, 영길현지(永吉县志)의 기재에 따르면 당시 영길현성 남쪽 강기슭에 위치한 성경 장군 저택은 동북 만족사합원 건축물이다.

1938년 이커탕아 장군의 증손자인 장려산은 일본으로 류학을 갔다가 1940년에 귀국했다. 동양 문화의 영향으로 장려산 부부의 생활 거주에도 변화가 생겼다. 귀국후 장려산 부부는 사합원 저택을 동양식 별장 모양으로 재건축하기로 했다. 1941년에 재건축을 시작하여 1943년에 준공되었는데 새 건물은 남향 주택으로 벽돌 목재 구조물이며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출입문이 동쪽에 나왔다.

건축면적은 450 평방미터이며 평면도형으로 보면 불규칙적인 정방형 모양으로 공간 배치가 합리하고 조형이 간결하며 베란다에서 송화강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1946년 장려산 저택은 동북민주령군 름시지회소로 사용되었고 1948년 3월 길림시가 해방을 맞으면서 길림성 제 1임 주석 주지형, 부성장 장문해, 제 1임 공업청 청장 주자명 등이 선후로 여기에서 사무를 보았다.

1954년부터 장려산 저택은 길림시인민정부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1958년 8월 길림시시상대가 이곳에 입주했고 1987년에는 시청부 기관유치원이 이곳에 입주했다.

2004년 길림시한성그룹에서 장려산 저택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한성그룹의 본부 사무실로 사용했다. 2013년 8월, 장려산 저택은 길림시인민정부로부터 길림시 제 6진 문화보호단위로 지정되었다.

이 건물은 길림지역 근현대 역사 변천의 중요한 산증인이 되고 있다. / 차영국기자



출재농업회사

1분기 힘찬 첫 출발... 생산 판매 호황



대두유 생산라인

올해초부터 길림출재농업제품 개발유한회사는 '시작이 절반'이라는 자세로 1분기 생산 및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기업의 핵심 제품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힘을 보태고 신제품들이 빠르게 돌파구를 마련하여 생산과 판매 모두 호황을 이루며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라는 양호한 국면을 보임으로써 전년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생산 면에서 스마트공장이 만부하 가동중이다. '길량' 브랜드 콩기름은 1,400헥타르의 유기농콩 재배기지와 스마트 생산라인을 기반으로 '저연(低烟) 정화, 잡냄새 제거 및 향기 보존'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켰는데 주문량에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성장했다.

'백피수'(白皮樹) 브랜드 자작나무수액은 생체 채취 기준을 고수하며 일 생산량이 6톤을 돌파, 제품은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 등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판매 면에서는 전 채널 실적이 호조를 보였다. 전통 제품중 '길량 콩기름'은 중국 농산물 브랜드 목록에 선정되어 전

국 20여개 성과 시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자작나무수액 시리즈 제품은 전국 특색관광상품대회 금상을 수상하며 관광지와 하이엔드 채널(高端渠道)에서 인기상품으로 부상했다.

신제품부문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는데 발아현미 음료는 이유식 시장을 정확하게 겨냥했고 자작나무금은화 유아 음료는 한약재 포몰라(配方)를 기반으로 온라인 채널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 두가지 신제품은 곧 성도에서 열리는 봄철 식품·주류 전시회에 출품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예정이다.

중국 식품산업 주요 기업 순위 500강에 속하는 출재농업은 산학연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 대학과 협력해 심층 가공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산업 체인 부가가치를 확장하고 있다.

회사는 신제품 업데이트 속도를 다그치고 국제시장을 확장하며 생태적 리즘을 통해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연간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면서 '길'자 브랜드 특색 농산물의 전국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길림일보

길림시령지산업발전협회 설립... 산업 고도화 다그친다

일전, 길림시령지산업발전협회 설립대회가 길림시 대동발명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길림시 령지산업이 조직화, 협력화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길림시농업농촌공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해당 협회는 정부, 업계, 기업 및 관련 기관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바 령지산업 체계의 현대화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리징표적인 의미를 갖는다.

장백산 자락에 위치한 길림시는 뛰어난 자연조건과 오랜 령지 재배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고품질 령지의 주요 생산지인바 생산량이 전 성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동안 재배가 분산되고 표준이 통일되지 않으며 브랜드 영향력이 부족하고 산업 연결고리가 원활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협회 설립후 길림시 령지 관련 기업, 합작사, 재배 농가, 류통주체, 연구소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자원을 통합해 재배, 연구개발, 가공, 마케팅 등 전 산업사슬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원 공유, 장점 상호 보완 및 브랜드 공동 구축을 촉진하고 령지산업의 고도화와 품질·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길림시 농업 관련 기관, 성내 연구

소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이번 대회에 참석해 길림시 령지산업의 규범화, 규모화로의 중요한 변화를 함께 목격했다.

앞으로 협회는 지속적으로 협력과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동시 제품들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총력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길림일보

교하에서 세계로! 작은 바이프 부품 주문량 급증



공장 내부 일각

《길림일보》기자는 최근 교하시에 위치한 길림시송강플라스틱바이프설비유한회사를 방문했다. 자동화 생산 공장은 한창 드바쁜 모습이었다. 로봇팔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코어(模芯) 감기, 사출 성형, 랭각, 자동 탈형 등 공정이 한 번에 매끄럽게 이어졌다.

바로 옆의 바이프부속가공공장에서는 CNC 선반이 정교하게 작업하고 배선기가 효율적으로 가동되면서 하나하나의 플랜지(法兰), 새들 피팅(鞍形管件)이 여러 공정을 거쳐 점차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설 연휴 이후 국내 가스, 금배수 분야의 주문이 잇달아 들어오고 있으며 해외 주문은 오스트랄리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 등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염립 부총경리가 이같이 소개하며 납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현재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며 전력을 다해 생산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플라스틱 바이프 용접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 이 회사는 현재 3개의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경 32밀리미터부터 2.25미터에 이르는 전 규격 바이프 부속 제품을 정밀하게 제조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스, 난방, 금배수 및 용접 설비 등 분야가 포괄되며 총

3,000여명에 달한다. 이 회사의 제품은 남수북조(南水北调) 프로젝트, 원자력발전 랭각 등 국가급 중점 프로젝트에 널리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세계 3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원활하게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다년간 연속년평균 약 20%의 성장폭을 유지하고 있다.

치열한 시장 경쟁에 직면하여 기업은 미래에 시선을 돌렸다. "발전하려면 주문을 완성하는 동시에 차세대 제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염립은 기자에게 매년 신제품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자금이 총생산액의 4%를 넘는다고 전했다. 회사가 국내 화학, 원자력, 광산, 해양 공학 등 분야의 대규모 바이프 부속 수요를 겨냥하여 지난해 1,000만여원을 투자해 신설한 바이프 부속 가공 장비 연구개발기지가 이미 준공되어 현재 가동전 마지막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력 강화와 시장 개척의 쌍방향 노력에 기업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다. 2025년, 회사의 매출액은 성공적으로 1억 원 대관을 돌파했는데 그중 해외 사업이 성장의 핵심 기동으로 자리매김했다.

/ 길림일보

화전시, 착실한 봄농사 준비로 풍년 기반 다진다

보름명절 이후 길림시 각 지역은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화전시는 봄농사 준비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일찍'이라는 원칙에 기반하여 일을 추진하고 사전 계획을 세우며 협력을 강화하는 등 2026년 식량 생산 '첫 전투'를 계획 일개 펼치고 있다.

현재 전 시 농업자재는 비축이 충분하고 농기계 수리와 더불어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중으로 새해 량곡 풍작과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6년 화전시의 식량작물 예정 파종면적은 195.29만 무에 달하는바 재배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기상정보와 결합하여 봄 때 올하는 눈발의 적설량이 적어 농사 시기를 잘 잡아 파종해야 하며 봄기름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 전 시의 봄 육수 수 파종 시기는 4월 20일로 예상되며 콩 파종 시기는 5월 1일, 벼 육묘 시기는 대략 3월 31일 이전이다.

동시에 년간 식량 생산 안정화 작



비료 준비에 바쁜 농민들

업을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해 화전시는 경작지 보호 보조금, 생산자 보조금 등 농민 친화적 보조금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콩 생산자 보조금 기준은 계속 무당 550원 수준을 유지하여 농민들의 콩 생산 의욕을 효과적으로 고취시키고 있다.

농업자재 공급 면에서 화전시는

일찍 계획을 세우고 일찍 비축하여 제때에 공급되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현재 화전시의 종자 계획 사용량은 3,275톤이며 기존 재고가 이미 충분히 확보되어 농가 보급률이 71.88%에 달한다.

비료 계획 사용량은 9.42만톤, 기

/ 길림일보